

인권정보자료실
CPe1.29

20세기 광기와 야만이 부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 학살

부끄러운 역사와 침묵으로 반전·평화·인권의 시대를 열자

구수정
(한겨레 21 통신원)

인권정보자료실
CPe1.29

20세기 광기와 야만이 부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으로 반전·평화·인권의 시대를 열자

구수정

(한겨레 21 통신원)

20세기 광기와 야만이 부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학살

-부끄러운 역사의 청산으로 반전·평화·인권의 시대를 열자

구수정

(한겨레 21 통신원)

1. 들어가는 말

한국군의 베트남전 파병을 결정했던 박정희 정권 시절, 그리고 바로 그 전쟁에서 전과를 올린 전투환이 정권을 잡았던 시절, 베트남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정권에 대한 도전이며 국가의 기강을 뒤흔드는 일이었다. '월남에서 돌아온 새까만 김상사'가 고엽제에 온몸이 썩어들어가고, 그의 전우가 해질 무렵이면 옥상에 올라가 돌을 던지며 "받아라 수류탄"을 외치는 동안 아무도 그것이 베트남전의 후유증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정권이 위기를 맞을 때마다 '월남패망'은 국민들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무기로 작용했다. 베트남전의 진실은 오히려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지닌 교련선생들의 무용담, 혹은 군대에서 전해내려오는 '전설'을 통해 간간히 그 단편을 드러내곤 했다. "자유와 정의의 십자가"로 칭송받던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은 사실 미국의 '용병'에 지나지 않았으며, "피도 눈물도 없는" 베트남을 잡은 혁혁한 전과 속에는 이제 막 세상과 인사를 나눈 갓난아이와 자신을 방어할 무기조차 지니지 못한 여인네와 노인 등 양민을 학살한 행위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군대와 극우반공주의자들의 선동, 선전, 언론의 직무유기로 한국에서 베트남전의 진실은 이제껏 어둠 속에 암장되어 있었다.

베트남전에 대한 논의는 금기사항(?)

우리가 흔히 베트남이라 부르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 중앙위원회 전 간부가 프랑스와 일본의 지배 하에서 반외세민족해방 투쟁에 참여했으며, 여성을 포함한 39명이 하나같이 투옥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반해, 5천 명의 한국군이 목숨을 바쳐 도운 소위 '자유 월남' 정권에는 과거 민족해방을 위해 싸운 사람이라곤 육군 중령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베트남전쟁이 민족해방세력과 반역세력의 대결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베트남전은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내전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베트남전이 단순한 공산주의 대 반공산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민족해방전쟁과 독립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또한

미국의 정치군사적 패권을 위한 세계지배전략의 산물이었다는, 온세계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을 한국 국민은 모르고 있었다.

제 3세계의 고통과 시련을 상징하는 베트남전쟁은 당시 제 1세계 내부에 반전 평화의식의 고양과 비판정신의 부활을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유럽의 새로운 지식인 계급을 대규모 봉기의 대열로 이끌어냈다. 1968년 5월혁명이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자유와 이성'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던 베트남 전쟁은, 한국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을 촉발시켰다. 박정희 군부세력은 베트남 전쟁을 밑거름 삼아 정권의 초석을 다지고, 나아가 3선개헌을 통한 정권연장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긴 폭압정치가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는 일체의 논의 자체가 금지되었다. 베트남전쟁과 관련 양민학살은커녕 그 성격에 대한 논의도 '금기'가 되었다.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의 양민학살에 대한 예기는 풍문으로만 떠돌았다. 이 금기의 벽은 80년대에 들어서도 허물어지지 않았다. 풍문의 진실을 밝히려는 개인과 집단은 보수우익 세력과 '참전군인회'의 협박,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1990년 7월 참전군인들이 사흘간 월간 <말>의 사무실을 점거하고, 기자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았으며, 사무실의 집기를 부수는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들은 <말>지가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재미 언론인 김민용씨가 미국 민간인 보고서를 기초로 베트남전에서의 한국군 양민학살 사건을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되었다. 1994년에는 김숙희 당시 교육부 장관이 '용병' 발언으로 취임 일주일만에 장관직을 물러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베트남전의 진실에 대한 침묵과 외면은 베트남인들에게는 고통과 모욕을, 한국인 의식의 심층에는 굴종과 야만을 뿌리내리게 했다. 한국에서 베트남전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 되었던 그 긴 세월 동안 베트남인들은 묵묵히 눈물의 위령비를 세우며 위령제를 올리고 한국군 양민학살 자료집을 만들어 자신의 상처를 역사에 새기고 있었다. 베트남전은 우리에게 잊고싶은 전쟁이다. 그러나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상처받은 '과거'를 들추어내는 과정이 없이는 화해와 평화의 '미래'도 없을 것이다. 비록 그것이 양심에 칼을 대는 아픔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할지라도.

역사는 우리에게 의문부호 하나를 던져놓는다. 과연 그대들에게 진정한 반성은 있는가.

2. 베트남전 개략

전쟁에는 언제나 분명한 목적이 있다. 모든 전쟁은 사전에 계획되고 치밀하게 준비된 시나리오에 의해 실행되는 것이다. 베트남 전쟁 역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예비된 전쟁이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 베트남전은 60년대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46년에 시작되었다.

반쪽의 승리, 제네바 협정

베트남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1945년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의 점령에서 해방된다. 그러나 100년간 인도차이나 반도를 지배했던 프랑스는 다시 베트남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군사적 재점령을 시도한다. 그리고 미국은 이러한 프랑스의 재식민지 전략을 도왔다. 49년 11월 프랑스군이 베트남에 대한 총공격을 개시하는 데는 미국의 지원이 약속되어 있었다. 1948년 동유럽의 대소대공 대결 군사체제인 북대서양방위조약(NATO)의 체결로 미국과 프랑스는 이미 군사동맹국의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독립을 지켜내려는 베트남 인민들과 프랑스 간의 8년 전쟁은 1954년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프랑스군의 결정적인 패배로 끝이 났다. 그러나 디엔비엔푸에서의 기념비적인 승리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제네바 협정의 테이블에 앉아야 했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디엔비엔푸 승리의 결과물인 제네바 협정으로 인해 국토와 인민이 남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결국 그것은 반쪽의 승리에 지나지 않았으며, 이때부터 미국과의 새로운 전쟁의 막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도미노이론의 주술

공식적으로 베트남 전쟁이 시작된 것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북베트남에 대한 군사행동을 단행하는 1964년이지만, 사실 인도차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그 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제네바 협정 이후 미국은 남베트남에 친미 반공정권인 고딘디엠 정권을 세우고 대리통치를 시작한다. 미국이 '동양의 처어칠'이라 치켜세운 고딘디엠은 '남북 총선거 실시를 통한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제네바 협정의 규정 이행을 거부한다. 약속대로 남북 총선거가 시행될 경우 호치민이 이끄는 베트남의 승리가 확실시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미국이 고딘디엠을 대통령으로 한 친미반공 정권을 세우고 지원한 논리의 기반이 소위 '도미노 이론'이었다. 호치민이 통일베트남의 대통령이 된다면, 베트남의 공산화가 이루어지고 만약 베트남에서 공산주의가 승리한다면 인도차이나 전체가 공산화되고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 전쟁의 위협성이 커지게 될 것이라는 게 이른바 '도미노 이론'이다. 남베트남이 그토록 미국에게 치명적으로 중요한 곳이 된 연유도 거기에 있다. 미국의 남베트남 개입을 더욱 촉구한 것은 바로 공산주의 대 자유주의라는 냉전의식과 '도미노 이론'이었다. 미국은 스스로를 '세계의 경찰'로 자부하였고, '자유세계의 안전'이라는 명분은 '도미노 이론'에 날개를 달아주었다. 미국의 세계지배의 환상과 상호작용하면서 도미노 이론은 주술적 힘을 발휘한다.

미국의 전쟁음모, 통킹만 사건

제네바 협정으로 약속된 총선거가 무산되고 고딘디엠 정권의 전횡, 무차별 체포, 강제수용소의 급증 등 반민주성과 부정부패의 만연 등으로 남베트남 민중들의 불만은 고조된다. 1955년부터 1963년까지 미국은 남베트남 군사예산의 85퍼센트를 원조하였으며, 민간부문과 군사부문을 합한 전체 사이공 정부 예산의 3분의 2를 지원하였다. 그러나 친미정권을 통해 대리 반혁명을 추진한다는 미국의 전략은 큰 차질을

빚었다. 미국의 전폭적인 지지와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어찌면 바로 그 때문에 고딘디엠 정권의 폭정과 부패는 당시 베트남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농민, 학생, 지식인들의 대규모 저항을 초래하였고,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베트콩)의 세력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미국에 의해 '베트남의 이승만'이라 평가받은 고딘디엠은 그 이름대로 이승만과 같은 운명을 밟았다. 고딘디엠이 자기 민중과 군부에 의해 살해되고, 연속적인 군사 쿠데타가 이어지는 등 남베트남이 내란사태로 치닫게 되자 미국은 베트남에 직접 개입방식을 선택하게 된다. 그 신호탄이 통킹만 사건이다.

통킹만 사건은 미 해군함정 매독스호가 공해상에서 북베트남 어뢰정 3척으로부터 부당한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이 이에 대해 보복공격을 가한 사건이다. 그러나 북베트남에 대한 폭격은 통킹만 사건의 대응조치로 취해진 것이 아니다. 미 군부는 이미 그 수개월 전부터 북베트남의 영공, 영해를 빈번히 침범하면서 은밀한 군사행동을 계속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북베트남이 매독스호에 수차 경고를 발한 후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즉 북베트남의 대응은 미 매독스호의 영해침공에 대한 정당한 방위행동이었다. 게다가 매독스호에 대한 북베트남의 제 2차 공격이 있었다는 미 정부의 주장은 있지도 않은 사건을 조작한 것이었다. 결국 통킹만 사건과 북폭은 미 군부가 치밀하게 준비해온 것으로 사전 계획된 시나리오에 의한 군사확대였다는 사실이 미 국방성 비밀문서에 의해 밝혀졌다. 통킹만 사건은 전쟁을 시작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으며, 미국의 북폭으로 사실상 선전포고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구정대공세, 반전의 확산

1965년에 발발한 베트남 전쟁은 1968년에 정치적 전환점을 맞는다. 1968년 1월 31일의 구정대공세는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이 대부분의 농촌과 도시를 장악하는 - 비록 잠시이지만- 결과를 낳는다. 미국은 이에 경악했다. 당시 미국의 공식 분석에 의하면, 남부베트남의 공산계릴라의 숫자는 29만 명 정도였다. 그러나 구정대공세 때 그들의 숫자는 50만에서 60만으로 불어나 있었다. 이는 미국민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었다. 구정대공세는 공산계릴라가 남베트남 민중과 맺고 있는 연대의 깊이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미 국민들은 미국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싸우는 것인지에 대해 본격적으로 회의하기 시작한다. 구정대공세로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북베트남군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그것이 미친 국내외의 반항은 대단했다. 미국내에서 반전시위가 본격화하였고, 유럽에서는 학생과 노동자들의 대규모 봉기가 일어났다. 1968년 5월 혁명이 그것이다. 동구에서는 소련의 제국주의와 스탈린주의에 저항하는 '프라하의 봄'을 촉발시켰다.

구정대공세 이후 미국은 베트남에서의 승리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미국내에서는 반전세력에 의해 국론이 분열되고, 베트남 전쟁의 비인도성은 세계의 양심을 자극, 국제여론도 날로 미국에게 불리해져갔다. 이에 미국은 베트남전의 국제화 전략을 수정, 베트남전의 베트남화를 꾀한다.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거인은 이제 자신

의 권위를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협상테이블에서 보다 많은 양보를 받아내야 했다. 이런 연유로 미국의 작전은 더욱 잔혹해진다. 네이팜탄과 고엽제의 대량살포로 베트남의 모든 숲과 들판이 불타고, 마을에서는 체계적인 학살이 일어난다. 밀라이양민학살은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최대 양민학살 사건이다. 1968년 3월 16일 아침, 선미지역의 작은 마을인 슝랑에 로켓헬기의 기관총으로 엄호사격을 받으며 군인들이 투입되었을 때 주민들의 저항은 없었다. 그러나 미군들은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무차별 사격을 가했다. 여인들은 윤간을 당하였고 모든 집들은 불탔다. 미국이 베트남 소탕작전이라 이름했던 이 전투(?)에서 베트남 양민은 모두 504명이 희생되었고, 미군의 피해는 이 끔찍한 학살에 혐오감을 느껴 스스로 자신의 발에 총을 쏜 흑인 부상자 1명이 전부였다.

어린아이는 예비 베트남, 노인은 전(前) 베트남?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살상과 파괴는 베트남 전쟁이 인민의 전쟁(people's war)이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에 다름아니다. 한 사회, 한 민족의 구성원 전체를 남녀노소, 무장 여부를 가리지 않고 '적'으로 규정해 제거하는 것은 인민의 전쟁에서 제국주의 군대가 약소민족 인민을 대하는 방식이다. 베트남의 밀라이 마을에서 미군들의 눈에는 어린아이들도 예비 베트남으로, 그리고 노인들은 전(前) 베트남으로 썩어붙어야 할 '빨갱이'로 간주되었던 셈이다. 미군의 눈에는 베트남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기에 학살은 가능했다. 베트남전에서 미군들은 베트남인들을 '국(gook)' 즉 오물, 때, 찌꺼기라 불렀다. 사실 이 말은 베트남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이 먼저 들었던 말이다.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들 역시 한국인들을 '국'이라 불렀다. 그리고 노근리에서 미군들은 또 이 노오란 '국'들을 마구 쏘아 죽였던 것이다. 베트남의 전 국토를 초토화시키고, 베트남인들의 참혹한 시체만 널려 있는 들판 위에 그들이 세우고자 한 자유와 정의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

미국의 최신식 무기와 압도적인 물량공세에 베트남은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과 민중과의혁명적인 연대로 맞섰다. 미국이 물리적 위력을 가하면 가할수록 오히려 민족해방 세력은 더욱 강대해지기만 했다. 미국은 "베트남을 석기시대로 되돌려 놓겠다"고 공언하며 2차대전 당시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국이 전체적으로 사용한 폭탄량보다 1.5배나 많은 약 9백만 톤에 달하는 폭탄을 그 좁은 땅덩어리에 퍼부었지만, 결국 "미국의 국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선언과 함께 두손을 들어야 했다. 세계 최강의 미국은 만신창이가 되어 동남아시아의 한 약소민족과 협정을 맺고 73년 2월, 27년만에 이 파란많은 땅에서 물러나야 했다. 미국이 실패하고 만 것은 베트남에 대해 너무 무지했던 탓이다. 베트남전쟁은 미국이 이해했던 것처럼 단순한 공산주의와 반공산주의의 대결이 아니라 민족주의와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독립투쟁, 혁명과 반혁명, 통일과 분열, 자유와 억압, 애국자와 민족반역자, 백색인과 황색인, 초현대식 무기와 원시적 소총 등등 20세기의 모든 모순과 갈등이 뒤엉켜 있는 복합적인 전쟁이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거나 아니면 애써 무시해 버렸다.

베트남전쟁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민의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었고, 물과 고기처럼 베트남과 인민이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었으며, 정규전이라기보다는 게릴라전의 상황을 피할 수 없었던 게 사실이다. 따라서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인들은 "베트남과 양민의 식별이 불가능했다"라는 상황논리로 양민학살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베트남의 퇴역장성 레치투인 장군은 "우리는 우리집에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닌가. 당신네들이 남의 집에 와서 다 죽이고 다 때려부순 거 아닌가.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 집에 갔는가. 당신들 같으면 누군가가 당신 집에 와서 다 부수고 다 죽여버리는데 문 걸어닫고 싸우지 않겠는가. 농민이 총을 들고 나서 는 것도 내 조국을 지키는 일이었다"라며 베트남전쟁이 외세에 대항하는 민족해방 전쟁이었음을 피력했다.

한편, 미국이 수행한 베트남전쟁은 바로 자신의 국민들에 의해서 거부당한 전쟁이기도 했다. 1961년부터 75년까지 베트남 전쟁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 징집을 기피하고 해외로 망명하고 징집을 거부한 미국 청년들의 숫자는 무려 57만 명에 달한다. 또한 베트남전쟁이 최정점에 달하는 1968년 한해 동안 베트남에서의 미군 탈주 병들이 5만3천3백52명에 이른 것은 세계 어느 전쟁에서도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다. 베트남 전장에서 죽은 군인들은 '히어로'(영웅)의 칭호를 받기는커녕 미국민들에게 '개죽음'이라는 모욕을 받았다. 베트남전쟁을 수행한 미국 지도자들이 내세운 '자유세계의 수호'라는 대의명분은 자신의 국민들조차 설득할 수 없을 정도로 허약한 것이었다. 이러한 전쟁에 한국군이 파견된다. 전세계 모든 나라가 이름하여 부도덕한 전쟁, 20세기 가장 비인도적인 전쟁이라 불렀던 바로 그 전쟁에 한국의 노오란 '국'(gook)들이 용병으로 투입된 것이다.

3.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박정희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머나먼 열대의 전장으로 떠나보내며 '성진만리'라는 표현을 썼다. 베트남전은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반공성전'이라는 뜻이다. 베트남전이 반공성전이 아니라 '인민의 전쟁', '민족해방전쟁', '통일전쟁' 등의 복합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는 것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한편, 한국군의 파병은 한국전 당시 미국에게 입은 은혜를 갚기 위한 것이라는 게 도의적 명분이 되었다. 한국이 미국의 신세를 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미국의 신세를 가장 많이 진 나라를 꼽는다면, 단연코 영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조상을 같이 하는 형제국가이며, 1차 세계대전은 물론 2차 세계대전에서도 나치독일에 의해 멸망될 단말마적 순간에 영국을 구출해준 것도 미국이요, 전쟁으로 인한 총체적 파탄으로 삼류국가로 전락하고만 영국을 마샬플랜에 의해 다시 일류국가로 발돋움하도록 도와준 나라도 미국이었다. 그러나 미국의 거듭되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사이공의 탄신녘 공항에 단지 6명의 의장대를 파견하는 것으로 간신히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데 그치고 만다. 영국 정부와 국민들은 베트남전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이다.

1965년 미국은 '베트남전의 국제화'를 통해 대베트남 군사 개입의 명분을 확보하고자 25개국에 참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요청에 화답한 나라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대만, 필리핀, 타일랜드, 영국, 한국 등 7개국에 불과했다. 그나마도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은 대부분 포병대와 공병대 등 실제 전투와는 관련이 없는 부대를 파견했다. 한국은 미국의 요청에 제일 먼저 반응한 나라였고, 유일하게 전투병력을 파견한 나라였으며, 32만 명에 이르는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나라였다.

한국군 파병결정, 박정희 정권의 선택

공식적인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은 1965년에 이루어지지만, 사실 한국군의 파병 논의는 1950년대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비롯된다. 1954년 제 1차 인도차이나 전쟁에서 프랑스군이 베트남에게 밀리고 있던 시기에 유엔 극동군 사령관 존철 장군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이승만 대통령은 인도차이나 공산군과 투쟁하고 있는 프랑스 군대를 원조하기 위하여 한국군 전투사단을 인도차이나에 파병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가 이 제의에 반대, 이승만의 베트남 파병시도는 좌절된다. 미국 역시 한반도에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내는 것은 미국내 여론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이 제안을 거절한다.

베트남 파병이 다시 거론된 것은 1961년 11월 워싱턴에서 열린 박정희와 케네디의 1차 회담에서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정부는 그 정통성에 치명적인 결함을 지니고 있었고, 따라서 미국의 지지에 정권의 존폐 여부가 달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회담에서 미국은 한일국교정상화와 민정이양의 실시(최소한 형식상 선거를 실시해 합법적 정부의 모양새를 갖출 것)를 요구하고, 박정희는 베트남 참전 가능성을 포함, 베트남전의 한국 지원을 제의한다. 결국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가 윤보선 후보를 15만 표 차로 가까스로 누르고 당선됨으로써 제 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지만, 박정희 정권은 첫 임기 4년 동안 한일국교정상화에 대한 반정부 시위, 야당의 극렬한 반발, 집권당 내부의 통치권에 대한 강력한 도전 등 정치적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파병을 국내의 비판적 여론을 외부로 돌릴 수 있는 하나의 돌파구로 생각했을 수 있다.

합법적인 민간정부를 쿠데타로 전복, 정권을 탈취하였다는 태생적 한계를 안고 있는 박정희 정부는 경제성장을 이루는 것으로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그러나 1960년대는 미국의 군사, 경제 원조가 급감하는 시기였고, 한국전쟁 이후 미국의 무상원조에 기반을 두고 수년간의 성장을 거듭하던 한국경제는 50년대 말 이후부터 전반적인 불황기에 접어들게 된다. 심각한 자금부족과 외화부족에 시달리고 있던 상황에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박정희 정부는 베트남 참전을 통해 일본이 한국전쟁에서 누렸던 이른바 '경제특수'를 노렸고, 대규모의 외국차관 도입, 미국의

경제, 군사 원조 확대, 한일협력 등의 목적을 획득하고자 하였다.

한편 베트남 파병의 또 다른 주요 동기의 하나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 군원기관계획의 지연, 군장비의 현대화 등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을 끌어내기 위한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한국군을 보내지 않으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병력을 베트남으로 돌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한국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없다'라는 미국의 약속은 최초의 한국군 전투부대 파병을 앞두고 이루어진 협상과정에서 한국정부가 이끌어내고자 하는 주요한 양보사항이었다. 또한 한국전쟁 이후 실전경험이 없었던 군을 훈련시키기 위한 목적도 내포되어 있었다.

이처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던 박정희 정부는 대내적인 위기 타개의 돌파구로서 베트남 파병을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베트남 파병은 단순히 미국의 압력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제3공화국 정권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상황을 탈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파병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박정희는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한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목숨이 팔려가고 있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독재자의 손아귀에서 결정되고 있었다. 베트남이 어디에 있는 땅인지, 베트남 인민들이 진실로 우리의 도움을 부르는지, 베트남전쟁이 정규전인지 게릴라전인지에 대한 이해도 없이 전쟁의 광기와 슬픔을 이해하기엔 너무나 눈부셨던 한국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머나먼 남쪽나라로 가는 군함에 올랐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권은 우리 민족이 5천년을 이어온 순백의 역사에 최초의 전투부대 파병이라는 하나의 오점을 찍고 만다.

참전의 대가, 고속성장

한국군은 64년 9월 22일 베트남 남부 봉타우를 통해 비전투 부대인 태권도 교관단과 의료단을 파견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전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65년 10월에는 청룡부대(해병 제 2여단)와 맹호부대(수도사단)가, 66년 4월과 9월에는 맹호 제 26연대와 백마부대(9사단)가 전투부대로 베트남에 상륙했다. 베트남의 동맥인 1번 국도를 잇는 주요 도시마다 한국군 부대가 자리했다. 백마부대는 캄란, 닌호아, 투이호아에 주둔했고, 맹호부대는 송커우, 궤년, 푸캇에 그리고 청룡부대는 쭈라이, 호이안, 다낭에 주둔했다. 주베트남 한국군 총사령부는 사이공에, 주베트남 한국군 야전사령부는 나짱에 있었다. 이 기간 중 한국군은 모두 1,170회의 대대급 이상 대규모 작전과 55만6천 회의 소규모 부대 단위작전을 수행했다. 1965년부터 1973년까지 9년간 청룡, 백마, 맹호부대 등 총 31만2853명의 다이한이 머나먼 열대의 땅 베트남을 다녀갔다. 그 중 4,687명은 하나뿐인 자신의 생명을 이 열대의 땅에 부려놓고 원혼으로 돌아갔다.

베트남전 참전 한국군의 피와 땀의 대가로 한국은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70~80년대로 이어지는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미국은 가난한 아시아의 청년들로 하여금 또 다른 아시아의 청년들을 죽이라고 파월 한국군의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고

해외전투수당을 지급했다. 또한 그들이 베트남에서 목숨을 파는 대가로 한국에 해외차관과 수출시장의 확대, 군사, 경제, 기술의 원조를 약속했다. 한국은 베트남 파병을 통해서 이십억 달러의 경제특수를 얻었다. 또한 베트남전에서 우리 군대의 작전능력과 실전경험을 쌓았으며, 미국의 지원으로 군장비의 현대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우리의 가난했던 아버지와 삼촌과 형이었을 대부분의 참전군인들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베트남에 가서 죽더라도 돈이나 벌어요자”는 각오로 낯선 이방의 나라로 떠났다. 그리고 우리 젊은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희생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은 수혜자인 셈이다. 우리가 직접 참전을 했던 세대는 아니지만, 베트남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참조 1) 참전국

오스트레일리아	200명-7천명 (린든 존슨의 압력)
뉴질랜드	30명-5백명
대만	30명
필리핀	17명-2천명 (마르코스)
타일랜드	1만 1천명
영국	6명(의장대)
한국	약 5만명의 전투병

(참조 2) 미군 참전 현황

- *참전기간 : 1961년- 1973년 3월 28일
- *참전인원 : 연 350만명
- *전사자 : 56,000명

(참조 3) 베트남군 참전 현황

- *인구 (남베트남: 1880만 북베트남: 2270만, 총 4100만)
- *전쟁 중 사망 : 110만명(군인) 150만명(민간인) 총 260만명 사망
- *전쟁 중 부상 : 400만명

(참조 4) 월남전 전사 및 부상

	전사	부상
*미군	56,000	200,000
월남군	200,000	500,000
월맹군	900,000	1,500,000
민간인	1,500,000	3,000,000
한국군	5,000	16,000

4.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양민학살

흔히들 베트남전을 '전선 없는 전쟁'이라 부른다. 베트남은 어디에도 있었고, 또 어디에도 없었다. 베트남 사람들조차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을 '소이더우'(녹두콩을 섞어지은 찰밥)라 불렀다. 찰밥에 녹두콩이 섞여 있는 것처럼 인민과 베트남이 끈끈하게 결속되어 있었다는 뜻이다. 낮에는 정부군이 통제하지만 밤에는 베트남이 지배하는 마을이 많았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군으로선 아군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양민들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는 현실에 맞닥뜨려 있었던 건지도 모른다. 학살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 한-미 공동 작전 시, 미군은 주로 후방에서 포를 쏘고 한국군은 직접 마을에 들어가 작전을 펼치는 등의 역할분담이 이루어졌다. 한국군 지휘부는 작전시 '깨끗이 죽이고, 깨끗이 불태우고, 깨끗이 파괴한다' '놓치는 것보다는 오인 사살이 낫다' '보이는 것은 모두 베트남이다' '물(인민)을 퍼내서 고기(베트남)를 잡는다' '어린이도 칩자다' '땅굴이 있는 집은 모두 베트남이다' 등의 전술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총구는 양민들을 향해서도 열려 있었던 것이다.

한국군 양민학살 숫자는 9천여 명 이상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은 아군 전사 5천명에 적군 사살 4만1400여 명이라는 무려 10배에 가까운 전과를 올렸다. 보통 게릴라 전쟁에서는 게릴라군보다 정규군의 피해가 높은 것이 보편적인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한국군은 이례적인 전쟁기록을 남긴 것이다. 또한 이밖에도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공식적인 통계로는 집계된 적이 없는 베트남 양민들의 희생이 있었다. 베트남 문화통신부에서는 -아직 불완전한 통계라는 단서를 달고 있긴 하지만- 한국군에 의해 집단학살당한 양민의 수를 대략 5천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80년대에 조사된 일부 양민학살의 통계만을 집계한 데 지나지 않는다. 당연히 한국군 양민학살 현장의 주민들은 이 수치를 신뢰하지 않으며, 정부가 정확한 진상조사에 소극적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주민들이 주장하는 숫자가 베트남 문화통신부가 공인한 수치의 배를 넘어서는 곳도 있었다.. 필자가 직접 현장을 답사하고, 베트남측의 자료와 미국 민간인 보고서 자료를 종합한 바에 따르면 한국군이 주둔했던 남부 베트남 5개성에서 약 80여 건의 양민학살 사건이 발생하였고, 총 9천여 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별첨 참조). 물론 이 또한 지금까지 밝혀진 양민학살 사건만을 통계로 정리한 것일 뿐이고 아직까지 미확인된 양민학살이 많은 만큼- 남베트남민족해방전선의 외교부장 응웬티빈은 70년대 초반 비동맹회의에서 한국군의 공식적 양민학살 건수가 약 3천 건에 이른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군 양민학살의 희생자 수는 이후로도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다.

어린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한 타이한 의 응맹

주월 한국군 참전 3훈에는 “적에게 용감하고 무서운... 월남인에게 예의바르고 친절한 타이한이 되자...”고 적혀 있다. 초대 주베트남 한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채명신 장군은 “한 명의 베트콩을 놓치더라도 100명의 양민을 보호하라”는 게 한국군 전술 방침이었다고 주장한다. 한국군들이 길을 닦고,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생필품을 지원하고 태권도를 보급하는 등 대민지원 사업에도 전투에 못지 않은 공력을 기울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한국군의 전부는 아니었다. “저기 타이한이 온다” 하면 어린아이가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한국군은 용맹(?)을 발휘하기도 했다.

“한국군이 처음 마을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어. 한국군이 마을에 주둔할 당시에 주민들은 마을 밖으로 쫓겨나야 했어. 전쟁이 끝나고 한국군들이 마을을 떠나고 나서야 사람들은 다시 마을에 돌아올 수 있었지.” 67년 한국군이 마을에 처음 들어오는 것을 직접 목격한 푸옌 성 호아쑤언 사의 응웬감(75) 할아버지의 증언이다.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은 참전 초기인 65~68년에 집중된다. 학살은 주로 부대가 주둔지를 확보하기 위해 마을에 들어오거나 주둔지 엄호를 위해 주변 마을의 주민들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푸옌성 뚜이호아 지역은 백마부대 28연대의 주둔지였다.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65년 말 이 지역에 맹호부대가 잠시 주둔했다가 66년 말부터 백마부대로 교체되었다고 한다. 청룡부대도 이곳을 거쳐 송커우, 쭈라이, 호이안, 다낭 등으로 이동한다. 당시 베트콩들은 이 지역의 바흔 산과 응비아 산에 거점을 두고 활동했다. 약 3-4일에 한번꼴로 한국군과 베트콩 간의 교전이 이루어졌다. “한국군이 한 명 죽거나 다치면 그 다음날엔 줄초상이 났어. 마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죄다 잡아다가 죽였지.” 한국군에 의해 총상을 입고 왼손 새끼손가락과 넷째손가락 절반, 오른발 넷째, 다섯째 발가락이 날아간 응웬탄중(50세)의 증언이다. 베트콩과의 교전시에 한국군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면 그 보복조치로 양민을 학살하기도 했다. 푸옌 성의 토림 양민학살 사건도 바로 그런 연유에서 일어났다. 비밀땅굴 속에 숨어 있던 베트콩이 던진 수류탄에 부상을 당한 최우식 소대장은 “말씀 마십시오 마을은 작살이 났습니다. 왜 마당에 모아놓았던 동리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 사살시켜 버렸는데 총 53명이나 됐습니다. 어찌나 악이 돌치던지 개새끼까지 모조리 없애...”라고 당시를 증언했다. 그는 부상을 입고 병원에 후송돼 양민학살의 현장엔 없었지만 본의 아니게 복수전의 계기를 제공한 셈이다.

빈딘 성 푸캣 현 깃띠엔 사(구 깃짠 사)에는 베트콩의 근거지인 빈딘 동부지구 가 있었고, 바(어머니) 산에는 베트콩의 주력부대가 활동하고 있었다. 한국군들은 바 산의 베트콩 세력을 소탕하고, 바 산 인근 마을의 주민들을 소개시켜 베트콩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자 깃띠엔 사에서 수 차례의 수색소탕작전을 수행한다. 1966년 9월 22일 오전 5~6시 경 수백 대의 헬기를 타고 날아온 맹호사단 소속 군인들과 당시 고보이, 탄호아, 푸자오, 짤빈 등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들이 바 산 인근 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벌였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집을 불태우고 가축을 총으로 쏘아죽인 뒤 주민들을 헬기에 태워(일부 주민들은 도보로) 푸캣 현으로

이송하였다. 그러나 깃띠엔 사, 쯡탄 촌, 남 마을의 주민들만이 이를 거부하고 이 마을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데모를 벌인다. 그 다음날인 9월 23일 새벽 약 1개 소대의 한국군 병력은 다시 쯡탄 촌 남 마을에 몰려가 땅굴과 가옥을 수색하고 이 마을에 남아있던 88명의 주민들을 학살한다.

전략촌 계획은 농촌 지역에서 베트콩과 주민들을 분리하기 위해 여기저기에 소규모로 흩어져 사는 주민들을 한데 모아 약 1천 명 단위로 새로운 마을을 건설해 집단 수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상승배의 전통을 깊이 간직하고 있는 베트남인들에게 있어 조상의 제단이 모셔져 있는 집과 대대로 이어온 텃밭을 버리고 집단 수용소와 다름없는 전략촌으로 이주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대부분의 양민 학살은 주민들이 전략촌으로의 입주를 거부하거나 전략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과 여자와 아이들이(장정이 아니기 때문에 군인들과 마주쳐도 별일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함) 농사를 짓기 위해 마을에 그대로 남아있던 경우에 일어났다.

꾸앙옹아이 성, 빈선 현, 빈호아 사는 온 마을이 다 한국군의 흔적이다. 빈호아 사 인민위원회 관사 옆 도오 언덕에는 베트남에서 세운 증오비와 영국에서 세워준 위령비가 서 있다. 도오 언덕의 비 외에 마을에는 3개의 작은 비가 더 있고, 9개의 장소에 학살의 원형이 보존돼 있다. 커우 마을의 우물은 군데군데가 갈라지고 총탄구멍이 뚫려 당시의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1966년 12월 3일(음력 10. 22) 빈호아 사, 룡빈 마을의 쉼터 언덕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부대 1개 대대가 이곳 9개 마을에서 소탕작전을 펼치면서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3일에서 6일까지 모두 430명이 집단학살을 당했지요. 응옥흥 마을에서는 80살 노인 후인의 목을 잘라서 눈에 걸어놓기도 했어요. 희생자들 중에는 임신부도 7명이 있었고, 2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하기도 했지요. 또 2명이 산 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졌고, 1명은 배가 갈라져 창자가 꺼내졌습니다.” 빈호아 사 부주석 또옹옥리(41)의 증언이다. 한국군들은 양민학살을 통해 베트콩들에게는 자신들로 인해 양민이 피해를 입는다는 심리적 부담을 안겨주고, 주민들에게는 베트콩에 협조하면 처참하게 죽는다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푸옌 성, 뚜이안 현, 안린 촌, 풍란마을에서는 한국군들이 사탕을 나누어주면서 30명의 아이를 모이게 한 후 총을 난사해 학살하였다. 죽어 있는 아이들의 입에는 채 녹지 않은 사탕이 물려 있었다. 꾸앙옹아이 성, 빈선 현, 빈호아 사에서는 1966년 12월 6일 오전 6시 경 한국군들이 쭈레 언덕 주둔지에서부터 세 방향으로 나누어 한 병력은 안콩 촌과 록뜨 촌으로, 한 병력은 까이야 촌 동중 마을로, 또 한 병력은 도로를 따라 도오 언덕을 지나 락선 마을로 밀고 들어왔다. 한국군들은 이들 마을에서 주민들을 잡아다가 오전 10시 경에 안쪽 촌의 육류지역과 동쭈이즈아 지역, 끼우 마을의 우물가 등 세 지점에 모았다. 그날은 비가 억수로 퍼붓는 날이었다. 타이한 군인들은 빗속에서 아무 말도 없이 총신만 닦고 있었다. 오후 4시 경이 되어서야 어디서 명령이 하달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타이한 군인들이 총을 쏘기 시작했다. 도보로 적어도 30분 정도가 걸릴 정도로 서로 떨어져 있는 각각의 세 지

점에서 동시에! 총성이 울렸다. 한국군들이 음식을 나누어주며 주민들을 안심시킨 뒤에 집단학살을 자행하는 것이나,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여러 지점에서 동시에 학살이 이루어지는 것이나, 베트남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무장하지 않은 노인과 임산부, 아낙과 아이가 남아있던 마을이 통제로 학살되는 상황 등은, 적군과의 교전중 의도하지 않게 양민이 희생되었던 것이 아니라 한국군 양민학살이 명령에 의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이며, 조직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의혹을 품게 한다.

불멸의 고통, 인두의 낙인

베트남에서는 어디를 가든 단아하게 단장된 열사들의 묘지와 열사탑을 볼 수 있다. 한국의 국립묘지와 같은 곳이 베트남 각 성의 동리마다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곳에 한국군에 의해 희생된 양민들의 무덤은 찾아볼 수 없다. 그들은 '베트콩'이 아니었듯 '열사'도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죽어서도 대접받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열사의 칭호도, 베트남 정부의 보조금도 한국 정부의 배상도 없었다.

꾸앙남 성의 투이보 촌에 사는 응웬티니(85) 할머니는 한국군의 총에 맞아 턱 아랫부분과 혀의 절반이 날아가 버렸다. 투이보 양민학살 사건 당시 한국군에 의해 딸과 사위, 세 명의 외손주를 잃었고 나머지 자식들도 전쟁통에 다 잃어버려 돌보는 이도 없이 외톨이로 살고 있는 할머니는 물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을 때면, 자리에 누워 입안으로 부어넣어야만 한다. 꾸앙옹아이 성, 빈호아 사의 팜쭝(41) 아저씨는 한국군이 땅에 묻어놓은 밭목지뢰를 밟아 하반신이 송두리째 날아갔다.

빈호아 사 끼우 마을 학살현장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생존자 도안옹이아(34)는 당시 생후 3개월밖에 되지 않는 신생아였다. 그는 어머니의 배 밑에 깔려 살아났지만, 탄피의 화약액이 두눈으로 흘러들어가 평생을 고아로, 장님으로 지내야 한다. 푸옌 성, 붕따우양민학살 당시 한 살배기 젖먹이였던 쯤티퐁(35)은 가족중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이지만, 총소리에 귀가 멀어 평생을 귀머거리로 보내고 있다.

꾸앙남 성, 풍니 촌, 립남 마을의 생존자 쩌티득(72) 할머니는 오른쪽 허벅지에 총탄자국이 남아 있다. 그러나 한국군의 총탄을 피해 달아나다 아들의 손을 놓쳐버린 할머니의 가슴에는 허벅지의 상처보다 더 깊은 피멍이 들어 있다. "계절이 바뀔 때면 상처가 다시 쑤셔와. 그놈 제삿날이 돌아오면 더 아픈 것 같아. 하긴 저 혼자 살겠다고 자식 손을 놓쳐버린 에미가 무슨 할말이 있다구..." 학살은 이곳 베트남 사람들에게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를 지어 주었다. 학살이 끝난지 30년이 지나도록 그들의 상처와 상실과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있다.

6. 베트남 사람들의 반응

현재 베트남 정부의 공식 입장은 "과거의 문을 닫고 미래로 나아가자"이다. 따라서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에 대해 아직까지는 베트남 정부가 미온적

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 정부가 노근리 사건이 불거졌을 때 미국과의 우호적 관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과도 같다. 베트남 정부로서는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한국과의 외교관계,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 위축 등 경제적 이해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신중한 고민이 뒤따랐을 것이다. "미국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3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4백50만 명이 부상을 당했으며, 2백만 명이 고엽제 등 화학무기로 피해를 입었다. 우리 정부와 당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건 우리의 상처가 너무 깊기 때문이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과의 전투를 직접 지휘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레치투언 장군의 말처럼, 가난한 베트남 정부로서는 1천만 명에 가까운 베트남전 피해자들의 상처를 들쭉셨다가 책임도 지지 못하고 엄청난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게 될지도 모르는 난처한 입장에 빠져 있다. 따라서 일단은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고 인민의 힘을 '경제발전'이라는 명제 아래 결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우리 정부가 언급하든 언급하지 않든 그게 뭐 그리 중요한가. 가해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당신네 군인들이 우리 국민들을 어떻게 했는지, 우린 말하지 않는다. 아직은 말하지 않는다.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들 죄악이 사라지는 줄 아는가. 우리가 사과를 요구하기 전에 당신들 스스로 우리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베트남인들의 요구에 마지못해 응하는 사과는 결코 진정한 사과가 될 수 없다는 레치투언 장군의 말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를 던져준다.

베트남의 '뜨거운 감자', 한국군 양민학살 보도

베트남 정부의 미온적인 반응과는 달리 베트남 사람들은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에서도 '한국군 양민학살'에 대한 언급은 하나의 '금기'였다. 그러나 30년 만에 처음으로 베트남의 가장 유력한 대중지 <뚩오이쨌> 신문이 <잊혀진 양민학살 - 그 생존자들과 함께>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다. 한국의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이 <베트남의 원혼을 기억하라>라는 한국군 양민학살 현장 르포르타주 기사를 최초 보도한 지 2주 후의 일이다. 뚩오이쨌 신문사로 독자의 격려전화가 쇄도했고, 성금이 답지하기 시작했다. 독자들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뚩오이쨌>는 계속해서 금기의 벽에 도전한다. <일요뚩오이쨌> 신문에 <한겨레 21>의 기사와 한국인들의 사죄 노력을 3주 연속 보도한 것이다. 이 기사를 작성했던 투이옹아 기자는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고 "당 위원회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고 한다. 베트남의 정부와 당의 속내(?)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투이옹아 기자는 이러한 반응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며 "이번 보도가 한국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의식의 근저를 흔들어놓았다"고 전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 참전, 양민학살, 최근 한국기업 관리자의 현지 노동자 구타사건 등등으로 베트남 사람들의 마음 밑바닥엔 한국인들에 대한 증오의 감정이 웅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몇 년 전부터 베트남

에 '한국드라마 열풍'이 불고 있다. 드라마가 그려내는 한국의 아름다운 이미지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투이웅아 기자는 "드라마가 한국에 대한 인상을 극히 일부 '개선'하는 데 그쳤다면, 한국인들의 한국군 양민학살 사죄노력은 한국에 대한 기존의 선입관을 '전복'했다고 풀이한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고 사죄하는 모습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저력을 느낀다는 것이다.

베트남인들의 요구,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공식적 사과'

베트남에서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자 베트남 정부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하노이 주재 '로이터'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황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한국 정부의 외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을 흘리기도 했다. 베트남의 각 언론사에 "한-베 양국 관계를 고려, 한국군 양민학살에 대해 더 이상의 언급은 자제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도'(사실상의 보도지침)가 하달되었다. 그러나 <뚜오이찌> 신문은 2주간의 망설임 끝에 일간지 국제면에 <한겨레 신문>의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양민학살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와 국제민주연대의 한국군 양민학살 사죄를 위한 거리캠페인 기사를 받아 보도했다. 이 기사가 보도되기까지 기자단의 전체의 결의(?)가 필요했다는 후문이다. 또한 재미있는 사실은 베트남의 당 기관지 성격을 지니고 있는 <사이공 해방>지가 "참회"라는 제목으로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를 언급한 점이다. 베트남에서 언론에 대한 지도와 통제는 당위원회의 사상문화반이 담당한다. <사이공 해방>지는 바로 이 호치민시 당위원회의 직속 언론이다. '더 이상 한국군 문제는 다루지 말라'는 보도지침을 하달한 곳에서 정작 이 문제를 재론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이다. <사이공 해방>지는 비록 <홍콩화남우체국> 신문을 인용해 보도하는 형식을 빌렸지만 "미국은 한국인들의 용감한 행동을 통해 자신을 되돌아보고 한국에게 배울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베트남 정부가 여전히 소극적인 반응으로 일관하고 보도지침을 내려 언론을 통제해도, 한국군 양민학살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관심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큰 애가 7살, 작은 애가 겨우 3살이었어. 타이한들이 땅굴에 총을 갈기고 수류탄을 던졌어. 산산조각이 나 흩어져 있는 그 어린 것들의 뺨조각을 이 두손으로 모아다가 묻었어. 어떻게 원한이 없을 수 있겠어. 그러나 30년 동안 한국 사람 한 명도 이 마을을 다시 찾아온 적이 없어. 그 세월 동안 가슴 속에는 한이 서리서리 쌓였지..." 한국군에 의해 어린 두 자식을 잃은 응웬반저 아저씨는 30년 만에 만난 한국인을 붙들고 울분을 터트렸다. 노근리의 피해자들도 반세기 동안 한을 품고 살아왔다. 베트남인들도 과거를 잊지 않고 있었다. 베트남 주민들이 가슴 속에 품고 있는 한의 무게도 노근리 주민들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다. 국민 대표, 기자 대표, 정부 대표, 국방부 대

표를 모아서 조사단을 꾸려라. 그리고 여기 와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라. 빈딘 성 19번 도로를 따라서 맹호가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제발 와서 사실을 알라는 것이다." 노근리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한을 알아주기를 바랬듯, 베트남인들도 한국인들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알아주길 바란다. 현재까지 베트남 국민들은 베트남전 양민학살 피해자 개개인의 배상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 정부의 진상조사와 '공식적 사과' 만큼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트남에서 한국군 양민학살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베트남의 언론인, 방송인, 지식인, 심지어는 일부 고위 공직자들까지 많은 베트남인들이 이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을 위해 어찌면 한국인들보다 더한 용기를 내고 있다. 이제 공은 한국 정부에게로 넘어 왔다. "미국이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잘못에 비교하면 한국이 가한 고통은 차라리 미미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사죄의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사죄 노력은 충격으로 다가왔다." 한국정부의 '겸손한 사과'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베트남인들의 이러한 감동은 배신감으로 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 문제가 '베트남의 노근리'가 될까 전전긍긍할 뿐이다. 학살은 독일도, 일본도, 미국도 저질렀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을 보였다!' 라고 역사에 기록할 수는 없을까.

6.나오는 글

베트남전은 우리에게도 '상처'였다. 우리 민족은 5천년의 역사를 이어오면서 단 한번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는 '백의의 민족'이라는 자부심에 오점이 찍히는 아픔이었다. 그래서 베트남전의 진실을 직시하는 것은 우리에게 고통이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양민학살을 얘기하는 건 더욱 어려운 문제이다. 바로 '우리가 가해자'라는 사실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한 베트남전의 참혹한 상처들을 '사죄'와 '용서'로 치유해 나갔으면 하는 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다. 그 전제로서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은 용서와 화해로 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모든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는 당연한 일이다. 베트남 피해자들과 참전 한국군들의 증언이 서로 엇갈리고, 우리 사회에 한국군 양민학살을 둘러싼 논란이 극단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당연히 한-베 공동조사단을 구성해 그 진상을 밝혀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베트남전 종전 25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지금까지 우리는 한번도 한국군이 남긴 상처에 대해 주목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일제시대 일본의 만행과 한국전 당시 미군의 학살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가해자로 참가한 베트남전의 베트남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침묵'과 '외면',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우리가 '노근리'의 진실이 밝혀지고 미국의 '책임있는 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희망

한다면, 베트남전의 한국군 양민학살 문제도 똑같이 처리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참전군인들이 '화해의 탑' 건립 등 베트남과 화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시도하는 것은 일단 환영할 만한 일이다.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꽃다운 청춘을 남의 나라 전장에 바쳐야 했던 '용병'으로 그리고 그 전쟁의 참혹한 기억으로 영혼까지 지옥에 저당잡혀야 했던 피해자로, 역사가 '가해자'라는 명예를 들썩웠던 참전군인들이 긴 침묵을 깨고 입을 연 것이다. 그러나 책임없는 용서는 있을 수 없고, 사죄없는 화해 또한 있을 수 없다. 화해의 탑이 서기 전에 '사죄의 탑'을 먼저 세우자. 그도 아니면 그 비는 억울하게 죽어간 원혼들을 달래는 '위령비'가 되어야 할 것이다.

20세기는 전쟁의 시대였고, 그래서 광기와 야만이 지배하는 시대였다. 그리고 베트남전쟁은 20세기의 고통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결절점이다. 특히 학살은 전쟁이 강요하는 가장 비인간적이며 반문명적인 '행위'이다. 이 야만과 광기의 시대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노력이 진행되지 않는 한, 우리의 21세기에 도 베트남의 비극은 되풀이될 것이다. 베트남전 양민학살을 해결하려는 노력은 베트남 피해자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는 일이며, 잘못된 역사를 청산하는 작업이며, 언젠가 우리에게 다시 덮쳐올지도 모를 우리 내부의 야만의 뿌리를 캐어내는 일이며, 우리의 21세기를 반전과 평화 인권의 세기로 이끄는 일이다.

뒤늦은 참회이지만, 우리의 사죄 노력은 평화의 세기로 향하는 '또다른' 시작이 될 것이다. 진실은 그 자체로 숭고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향해 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것이다.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양민학살 통계자료

1. 푸옌(Phu Yen) 성

1-1. 투이호아(Tuy Hoa) 현

	장 소	기 간	내 용	출 처
붕따우 (Vung Tau) 양민학살	남(南)호아히엵 (Hoa Hiep Nam)사, 붕따우촌	1966.1.2	한국군들이 37명을 모아놓고 총 을 쏘아 학살함. 붕따우 양민학 살의 생존자인 롱티퍼이는 당시 만삭의 임산부로 총탄에 두 다 리가 잘려나감. 당일 오후 시체 더미 위에서 아이를 출산.	푸옌 성 기자회견 (필자가 롱티퍼이 등 생존자들의 증 언 직접 채록, 마 을 들판에 서있는 증오비 확인)
반록 (Van Loc) 양민학살	호아미(Hoa My)사, 반록촌, 마이 둔덕(Go Mai)	1966.1.22 (음력 1.2) 아침	홍 산(Nui Huong)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들이 반록촌으로 수 색소탕작전을 내려와, 마이 둔 덕에 53명을 모아놓고 총을 쏘 아 학살함.	푸옌 성 기자회견 (추적 60분 취재 팀과 함께 호아미 사 인민위원회에 서 생존자들의 증 언 직접 채록)
	호아미사, 반록촌, 혼딘(Hon Dinh) 마을	1966.1.22 (음력 1.2) 오후	한국군이 주민들을 집마당에 모 아놓고 다연발총을 쏘아 학살 함. 이 사건으로 58명이 사망하 고 4명이 시체더미에 깔려 살아 남.	푸옌 성 기자회견 (당시 신생아였던 생존자 응웬동은 현재 푸옌 성 건 설청 기사로 일하 고 있음)
미탄 (My Thanh) 양민학살	호아퐁(Hoa Phong) 사, 서(西)미탄(My Thanh Tay)촌, 까이다 둔덕(Go Cay Da)	1966.1.24 (음력 1.4) 아침	한국군들이 62명을 까이다 둔덕 에 모아놓고 학살함.	푸옌 성 기자회견
	호아퐁사, 중(中)미탄(My Thanh Trung)촌	1966.1.25 (음력 1.5)	한국군들이 땃 산(Nui Dat)에서 2명의 양민을 몽둥이로 때려죽 임. 동시에 중미탄촌에서 42명 을 모아놓고 학살함.	
떤미 (Tan My)	호아퐁사, 땃미촌, 퐁 둔덕(Go Phong)	1966.1.26 (음력 1.6)	한국군들이 38명을 집단 학살 함.	
푸니에우 (Phu Nhieu)	호아미(Hoa My)사, 푸니에우촌, 티 둔덕(Go Thi)	1966.1.28	한국군들이 19명을 집단 학살 함.	

호아동 (Hoa Dong) 양민 학살	호아동사, 푸미(Phu My)촌	1966.1.28	바켓(Ba Ket)과 끼우짜이(Cau Chay) 초소에 주둔했던 한국군들이 푸미촌으로 내려와 30명을 집단 학살함. 여성들은 강간한 뒤 총으로 쏘아 죽였으며, 30구의 시신을 세 개의 우물에 나누어 던져 넣음.	푸엔 성 기자협회 (추적 60분 취재팀과 함께 당시 우물이 있던 현장 확인)
	호아동사, 미퐁(My Tuong)촌과 꾸앙푸(Quang Phu)촌	1966.1.28	한국군들이 7명의 여성을 체포, 윤간. 그 중 2명이 한국군의 야만성에 대해 욕설을 퍼붓자 칼로 목을 찢어 죽임. 나머지 5명은 정원으로 끌고 가 몸을 묶고 윤간한 뒤 모두 칼로 찢어 죽임(그 중에는 9세의 소녀도 포함).	
	호아동사	1966.1.28	10명의 한국군들이 시엡(Sieng)을 윤간한 뒤 총을 쏘아 몸을 산산조각 냄.	
	호아땀 (Hoa Tan)	1966.1.28	한국군들이 2명을 체포, 두손을 묶은 뒤 우물 속으로 던져 죽임.	
	벤삭 (Ben Sach)	1966.1.28	한국군들이 1명의 여자아이를 윤간한 뒤 총으로 쏘아 죽임.	
<p>※ 비고 : 이상이 반부렌(Van-Bua-Ren : 다섯 개의 화살) 작전 당시 일어난 한국군 양민학살로 그 희생자 명부가 공식집계되어있는 사건들이다. 베트남 측은 이밖에도 반부렌 작전에서만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수천 명의 양민이 학살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p>				
빈꾸앙 (Vinh Quang) 양민 학살	푹선(Phuoc Son)사, 빈꾸앙촌	1965.9.?	한국군들이 주민들의 땅굴 속으로 47통의 독가스를 분사해 1백명 이상이 심하게 중독. 37명 사망, 7명 동공 파열.	베트남 문화통신부 - '남부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죄악'
토림 (Tho Lam) 양민 학살	남호아히엵 (Hoa Hiep Nam)사, 토림촌	1966.5.14 (음력4.24)	한국군 자매부락인 푸히엵(Phu Hiep) 촌장의 안내로 토림촌 비밀땅굴 확인. 땅굴 속에 숨어 있던 베트남이 던진 수류탄에 의해 월남경찰이 죽사하고 한국군 소대장과 월남 통역관이 부상을 당함.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군들이 43명의 주민을 집단 학살함.	푸엔 성 기자협회 ('말'지 한국군 소대장 증언 채록, 추적 60분 취재팀과 함께 브이티농 <현 남호아히엵사 소학교 교사> 등 생존자 증언 직접 채록)
콘레이 (Con Ray) 양민 학살	남호아히엵사, 다응우(Da Ngu)촌, 콘레이 마을 (더 부인 정원)	1966.5.14	한국군들이 41명을 집단 학살함.	푸엔 성 기자협회 (필자가 현장취재를 통해 생존자들의 증언 직접 채록)

카이카이 (Cay Cay) 양민 학살	콩(Cong) 마을과 쭈아(Chua) 마을, 까야카이 둔덕 (Go Cay Cay)	1967.3.17 ~4.15	1967년 3월 17일부터 4월 15일까지 맹호부대와 남베트남 47대대가 함께 동다(Dong Da-베트남 지명) 작전을 전개, 이 과정에서 모두 451명의 양민이 학살됨. 1967년 3월 20일 맹호부대가 동진(Dong Chinh)에서 콩 마을(2지역)로 물러와 2지역, 3지역과 쭈아 마을의 주민들을 카이카이 둔덕으로 끌고 가 일렬로 세워 다연발 총을 난사하여 학살함. 그 중 2명의 여성이 강간을 당한 뒤 다른 10명과 함께 칼에 찢려 죽음.	푸엔 성 기자협회
----------------------------	--	--------------------	--	--------------

1-2. 투이안(Tuy An) 현

안린 (An Linh) 양민 학살	안린사, 퐁란(Phong Lanh)촌 (5지역)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사탕을 나누어주면서 30명의 아이들을 모이게 한 뒤 총을 쏘아 학살함. 죽어 있는 아이들의 입에는 채 녹지 않은 사탕이 붙어 있었음.	푸엔 성 기자 협회
	안린사, 까 둔덕 (Go Ca)과 지엡봉(Gieng Vong) 마을, 퐁타이(Phong Thai)촌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안린사 까 둔덕에 30명을 모아놓고 총을 쏘아 죽임. 지엡봉 마을 르(Luu)씨 집마당에서 12명을 총으로 쏘아죽임. 퐁타이촌 응웬산(Nguyen Sanh) 가족의 경우에는 모두 7명이 몰살을 당하고 손자 1명만이 생존. 위와 같은 형태로 안린사에서만 총 167명의 양민이 학살됨.	
안쑤언 (An Xuan) 양민 학살	안쑤언사, 카이 둔덕 (Go Cay)과 곰다자이 (Gop Da Dai) -7지역, 6지역과 4지역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까이 둔덕에서 127명, 곰다자이에서 12명을 집단학살, 안쑤언사 7지역 전역에서 단지 2명만이 살아남음. 6지역에서 한국군들이 보팜(Vo Pham) 노인을 체포, 나무에 묶어놓고 수염을 모두 뽑은 뒤 땅굴 속에 던져 넣고 산 채로 불태워 죽임. 4지역에서는 한국군들이 리엔(Lien)을 체포, 나무에 매달아 칼로 다리를 자르고 배를 갈라 창자를 모두 끄집어냄. 위와 같은 형태로 안쑤언사에서만 모두 152명의 양민이 학살됨.	
안니엵 (An Nhiep) 양민 학살	안니엵사, 머이(Moi) 시장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29명을 집단학살함. 한국군들은 여성들을 머리 시장에 모아놓고 집단 강간하였으며 두팔에 아이를 안고 있던 호티끼엔(Ho Thi Kien)이 저항을 하자 즉석에서 총을 쏘아 죽임. 홍(Hong)씨의 처형도 저항을 하다 총에 맞아 숨졌으며, 그녀의 젓가슴에 매달려 있던 젓머리가 딸 변(Van)은 실종되었음. 그밖의 여성들은 강간당한 뒤 총살되어 불타고 있는 눈에 던져짐.	푸엔 성 기자 협회(푸엔 성 기자협회에서 는 현재 변 (Van)의 생 사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노력 중임)

안딘 (An Dinh) 양민학살	안딘사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8명의 노인을 체포, 일렬로 줄을 세워 총을 쏘아 죽임. 또한 쑹(Cung) 노인의 딸을 강간한 뒤 음부에서 배로 칼로 찢어 넣어 죽임.	푸옌 성 기자협회
안토 (An Tho) 양민학살	안토사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안토사로 수색을 내려오던 중 시장에서 돌아오는 호오(Huu)씨의 부인을 운간한 뒤 칼로 양쪽 귀를 관통시켜 죽임. 또한 응웬루옹(Nguyen Ruong)을 총으로 쏘아 죽인 뒤 간을 꺼내어 볶아 먹음. 그리고 쩡뚜언(Truong Tuan)의 배를 갈라 간을 꺼냄.	
안호아 (An Hoa) 양민학살	안호아사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58명의 양민을 집단 학살함. 그중 2명의 아기를 서로 묶고 칼로 두 아이를 관통시켜 죽임.	
푸선 (Phu Son) 양민학살	안닌 (An Ninh)사, 푸선촌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푸선촌으로 소탕작전을 내려와 고마(Go Ma)에서 28명, 레틴(Le Tinh)에서 11명, 띠롱(Tan Long)에서 13명, 안전(An Dan)에서 25명, 안미(An My)에서 27명을 집단 학살함.	
안첸 (An Chan) 양민학살	안첸사	1967.3~4 (정확한 날짜 미확인)	한국군들이 33명을 모아놓고, 총을 쏘고 톱으로 손발을 잘라 중상을 입힌 후 병원으로 후송.	
찌자 (Cho Gia) 양민학살	안닌사, 자(Gia) 시장	1967.12.20	한국군들이 어린이들을 자 시장에 모아놓고, 총을 난사해 31명 사망, 30명 중상. 그 중 가장 큰아이가 응웬도(Nguyen Do, 16세)이며, 가장 어린아이가 응웬만(Nguyen Man, 11세).	

1-3. 선히아(Son Hoa) 현

푼뎐 (Phuoc Tan) 양민학살	푼뎐사	1967.12.?	한국군들이 35명의 소수 민족들을 모아놓고 집단 학살함.	푸옌 성 기자협회
수오이체 (Suoi Che) 양민학살	수오이체사, 마탕(Ma Tang)촌과 나푼(Na Phuong)촌과 나선(Na Xin)	1970.10.18 ~10.19	한국군들이 수오이체사의 마탕, 나푼, 나선 세 개 촌을 완전히 불태우고, 전 재산을 강탈하였으며 147명을 학살함.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 - '남부베트남 에서의 남조선 군 대의 죄악'
까루이 (Ca Lui) 양민학살	수오이체사, 까루이촌	1970.10.18 ~10.19	한국군들이 7명을 학살하고, 7명을 부상케 함.	

* 푸옌성에서는 현재까지 22건의 양민학살사건이 공식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729명의 희생자 명단이 공식 집계되었다. 이 밖에도 베트남 측은 아직까지 미확인된 한국군 양민학살 희생자가 푸옌성 지역에서만 수천 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할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푸옌성 기자협회는 현재 한국군에 의한 양민학살 사진 조사를 진행 중이며 약 6개월 후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이다.

2. 빈딘(Binh Dinh) 성

2-1. 타이선(Tay Son) 현

	장소	기간	내용	출처
빈안 (Binh An) 양민학살	파이빈 (Tay Vinh - 구 빈안)사, 안빈촌, 고자이(Go Dai) 마을	1966.2.26	단 1시간만에 모두 380명의 주민이 한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으며,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었음.	빈딘박물관(전 한월문화회관) 소장 자료집 (추적 60분 취재팀과 함께 고자이 양민학살 현장에서 있는 위령탑 확인, 증언자들의 육성 직접 채록, 시민단체 '나와 우리' 현장답사)
	파이빈사, 안푼 둔덕 (Go An Phuc)	1966.2.7	안푼 둔덕에서 학살된 총 희생자 수는 46명이며, 이중 신원이 확인된 사람이 13명, 나머지 33명은 이름이 확인되지 않음.	빈딘박물관(전 한월문화회관) 소장 자료집
	파이빈사, 년투언 (Nhon Thuan)촌, 송간(Song Con) 마을	1966.2.12	송간 마을에서는 모두 33명의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2명의 생존자가 있음. 희생자 중 10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음.	
	파이빈사, 안빈(An Vinh)촌 안록 둔덕 (Go An Loc)	1966.2.23	안록 둔덕에서는 모두 90명의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그중 40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음.	빈딘박물관(전 한월문화회관) 소장 자료집 (추적60분 취재팀과 함께 생존자 증언 채록, 안칸 양민학살 위령비 확인, '나와 우리' 현장답사)
	파이빈사, 안빈촌, 안칸(An Khanh) 마을	1966.2.15 (음력1.23)	안칸 마을에서는 모두 65명의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그중 28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음. 생존자 응웬뎐런(Nguyen Tan Lan-당시 15세, 현 파이빈사 당서기장)은 포성이 들려와 땅굴에 숨어 있다가 한국군에 의해 레칸(Le Khanh)씨의 눈으로 끌려갔으며, 한국군들이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 주민들을 학살했다고 증언.	
	파이빈사, 미투언 (My Thuan)촌, 로소이(Lo Soi) 마을	1966.2.12	로소이 마을에서는 모두 40명이 학살되었으며, 그중 17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음.	

빈안 (Binh An) 양민학살	파이빈사, 년투언촌	1966.2.7	년투언촌의 후인빈흥(Huynh Vinh Huong)씨 집에서 9명이 학살당함. 년투언촌의 응웬하탄(Nguyen Ha Thanh)씨 집에서 6명이 학살당함.	빈 단 박물관 (전 한월문 화회관) 소 장 자료집
	파이빈사, 안빈 (An Vinh)촌	1966.2.2	안빈촌 후인티본(Huynh Thi Bon)씨 땅굴에서 모두 17명이 학살당했으며 그 중 5명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음.	
		1966.3.12	안빈촌 판반푹(Phan Van Phuc)씨 집에서 10명이 학살당함.	
	파이빈사, 빈득 (Binh Duc)촌	1966.2.12	빈득촌 레푹(Le Phuc)씨의 정원에서 6명이 학살당함. 빈득촌 전응오(Tran Ngo)씨 땅굴에서 9명이 학살당함. 빈득촌 묘비 앞에서 6명이 학살당함. 빈득촌 묘지에서 5명이 학살당함.	
	파이빈사, 미득 (My Duc)촌	1966.2.7	미득촌 응웬반지엔(Nguyen Van Dien)씨 정원에서 6명이 학살당함.	
빈안사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죽은 사람들	1966.1.23 ~2.26 (음력)	빈안사 이곳 저곳에서 흩어져 죽은 사람은 약 3백명에 달하며 그 중 182명은 신원이 확인되어 명부에 올라있음.		

* 빈안 양민학살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최대 양민학살로 1966.1.23~2.26(음력)까지 맹호부대 3개 중대에 의해 파이빈사(구 빈안사) 15개 지점에서 총 1028명의 양민이 학살되었으며 그 중 신원이 확인되어 명부에 올라있는 공식 사망자 수만 728명이다. 또한 전체 가옥의 95%인 총 1535채의 가옥이 불태워지고, 소 385마리, 돼지 204마리, 쌀 83만5천3백6십kg이 불태워지거나 강탈되었다.

2-2. 투이푹(Tuy Phuoc) 현

편장 (Tan Dang) 양민학살	푹호아 (Phuoc Hoa)사, 편장촌	1965.1.22	고보이(Go Boi) 지구에 주둔하고 있던 한국군들이 편장촌에 수색을 내려오다, 매복하고 있던 유격대와 현(縣) 부대의 공격을 받아 1명 사망, 1명 부상을 당함. 이에 대한 보복으로 3시간 동안 45명의 편장촌 주민을 학살함. 현재 마을에는 집집마다 마당에 무덤과 작은 묘비가 세워져 있음.	빈 단 박물관(전 한월문화회관) 소장 자료집 (필자가 현장을 답사하여 생존자들의 증언을 직접 채록하고, 학살현장과 무덤, 묘비 등을 확인함. 시민단체 '나와 우리' 현장답사)
노림 (Nho Lam) 양민학살	푹흥 (Phuoc Hung)사, 노림촌	1966.3.23	한국군들이 각종 수송기를 타고 고보이, 늑만(Nuoc Man), 년한(Nhan Hanh)사 등에 착륙, 푹흥사 노림촌으로 소탕작전을 들어옴. 오전부터 각 마을에서 수색작전을 펼치던 한국군들은 주민들을 토끼몰이를 하듯 암썩루엔(Am Xac Luyen-썩루엔 암자)으로 몰아넣음. 오후 2, 3시경 남자와 여자들을 2패로 가르고, 먼저 여성들을 향해 세 정의 다연발총을 거치, 쏘아 죽인 뒤, 남성들을 각 땅굴 속으로 밀어 넣고는 수류탄을 던지고 총을 쏘아 죽임. 그 밖의 여성을 강간하고 아이의 몸을 찢거나 머리를 부서뜨려 우물에 던져 넣기도 함. 이 노림 양민학살로 136명이 희생되었고, 시신은 한국군에 의해 불태워짐.	

2-3. 푸깟(Phu Cat) 현

쫑탄 (Truong Thanh) 양민학살	깃띠엔 (Cat Tien)사, 쫑탄촌	1966.9.23 (음력 8.10)	한국군들은 당시 깃짬(Cat Chanh-현 깃띠엔)사의 바산(Hon Ba)에 주둔하고 있던 베트남 세력을 소탕하고, 바산 인근마을의 주민들을 소개시켜 베트남에 대한 지원을 차단하고자 수차례의 수색소탕작전을 수행. 그러나 깃띠엔사 쫑탄촌 남(Nam) 마을의 주민들이 일을 거부하고 마을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테도를 벌이자 모두 88명의 주민을 학살함.	빈 단 박물관(전 한월문화회관) 소장 자료집 (필자가 현장을 답사하여 생존자들의 증언을 직접 채록하고, 학살현장과 무덤 등을 확인함. 시민단체 '나와 우리' 현장답사)
호이록 (Hoi Loc) 양민학살	깃탕 (Cat Thang)사, 호이록촌	1966년 초	한국군들이 비행기로 주민들에게 마을을 떠나라는 전단을 뿌린 후, 약 70명의 주민들이 길바다에서 살해됨.	미국 민간인 보고서 - 다이엔 & 마이클 존스의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깃한 (Cat Hanh) 양민학살	깃한사, 편쑤언 (Tan Xuan)촌과 쿠언푹(Khunh Phuoc)촌	1965.12.30	2명의 한국군이 저격수의 총에 피살된 후 32명의 주민이 학살됨.	

2-4. 안년(An Nhon) 현

김타이 (Kim Tai) 양민학살	년풍 (Nhon Phong)사	1966.???	약 30명의 사람들이 학교 건물로 끌려갔고, 건물이 불태워짐. 노인 1명과 소년 1명이 살아남음.	미국 민간인 보고서 - 다이엔 & 마이클 존스의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년풍사(寺) 신문
안년 양민학살	안년현	1966.1.9	한국군들이 안년현에서 소탕작전을 펼쳐 이 지역주민 150명을 학살함.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 - '남부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죄악'
		1970.12.9	한국군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소년 한 명을 총을 쏘아 죽임. 그 다음날 이에 항거 중고생, 대학생들이 시위를 일으키자 시위참가 청년을 총으로 쏘아 죽임.	AP통신 1970.12.10

* 빈딩성은 맹호부대 주둔지로 현재까지 8건의 양민학살 사건이 공식 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581명의 양민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3. 꾸앙응아이(Quang Ngai) 성

3-1. 빈선(Binh Son) 현

	장소	기간	내용	출처
빈호아 (Binh Hoa) 양민학살	빈호아사, 안푼 (An Phuoc)촌, 썸꺼우 (Xom Cau)촌	1966.12.6	오전 6시경 한국군들이 쭈레(Chu Le) 언덕에서 내려와 오전 10시경 안푼촌 옥롱(Doc Ruong) 지역과 동쵸이즈아(Dong Choi Giua) 지역, 썸꺼우촌의 우물가 등 세 지점에 주민들을 모음. 오후 4시경 세 지점에서 동시에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 171명의 주민을 학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 - '1966 빈호아 양민학살' • 미국 민간인 보고서 - 다이엔 & 마이클 존스의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 필자가 현장답사를 통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직접 채록하고 위령비 확인.
	빈호아사, 까이자 (Cay Da)촌, 동중(Dong Trung) 마을	1966.12.6	한국군들이 동중 마을에서 134명의 주민을 학살함.	
	빈호아사, 찌호아 (Tri Hoa)촌	1966.12.3 (음력 10.22)	빈호아사, 롱빈(Long Binh) 마을의 찌우레(Chau Le) 언덕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 1개 대대가 찌호아 마을에 내려와 소탕작전을 전개. 한국군들은 눈에 숨어 있던 주민 15명을 발견, 총을 쏘고 수류탄을 던져 죽임. 응옥홍(Ngoc Huong) 마을에서는 80세 노인 후인(Huynh)의 목을 잘라 눈에 걸어 놓음.	
	빈호아사, 찌호아촌, 롱빈 (Long Binh)촌	1966.12.5	한국군들이 찌호아촌과 롱빈촌에서 36명의 주민을 체포, 쭈웅딘(Truong Dinh) 폭탄구덩이에 몰아넣고 총을 난사해 죽임. 현재 이 폭탄구덩이 자리에 '증오비'가 서있음.	
<p>※ 비고 : 빈호아 양민학살은 1966.12.3~6일까지 3일 동안 빈호아사 9개 촌에서 모두 430명의 양민이 학살된 사건이다. 그 중 여성이 268명, 노인이 109명, 어린이가 182명이었으며, 7명의 임산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2명이 산채로 불구덩이에 던져졌으며 1명이 목이 잘렸고, 1명이 칼로 배가 갈리어졌고, 2가구가 1명도 남김없이 몰살당했다. 현재 빈호아사 인민위원회 관사 옆 언덕에는 '증오비'가 서있고, 그 옆에는 영국에서 세워준 위령비가 자리하고 있다.</p>				

푸니에우 (Phu Nhieu) 양민학살	빈안(Binh An)사, 푸니에우촌	1967.3월 혹은 그 이후	눈에 숨어있던 35명의 주민들이 발각되어 총살당함.	미국 민간인 보고서 - 다이엔 & 마이클 존스의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1967년 초	장정들이 달아난 마을을 지키려고 남아있던 30명의 여자와 아이들이 학살당함.	
푸꾸이 (Phu Quy)	빈득(Binh Duc)사, 푸꾸이촌	1967.3.26	약 100명의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학살당함.	
찌우투언 (Chau Thuan)	빈득사, 찌우투언촌	1966.10.9	커다란 병커 속으로 끌려간 51명의 주민들이 폭발물과 포격으로 학살당함.	
탁안 (Thach An)	빈투옌(Binh Tuyen)사, 탁안촌	1967년 초	30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 뒤로 손이 묶인 채 언덕 꼭대기로 끌려가 총살당함.	
빈호앙 (Binh Hoang)	빈호앙사	1967년 초	두 마을에서 30명 이상의 주민들이 눈으로 끌려가 총살당함.	

3-2. 선민(Son Tinh) 현

지엔니엔 (Dien Nien) 양민학살	면선(Tinh Son)사, 지엔니엔촌	1966.11.13 (음력 10.2)	존 산(Nui Tron)에 주둔하고 있던 청룡여단 3대대 소속 1개 중대가 지엔니엔촌으로 내려와 수색소탕작전을 펼침. 한국군들은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주민 112명을 지엔니엔 사당으로 끌고가 학살함. 현재 지엔니엔 사당은 초등학교로 변해있고 학교 앞마당에 위령비가 세워져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앙응아이성 문화통신부와 박물관 소장 자료 • '추적60분', '시사매거진 2580' 취재팀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위령비, 무덤 등 확인.
푼빈 (Phuoc Binh) 양민학살	면선사, 푼빈촌	1966.10.9 (음력 9.27)	오전 8시경, 룡동(Rung Dong) 막사에 있던 청룡 3대대 소속 1개 소대가 푼빈촌으로 밀고 들어와 집집마다 땅굴을 뒤져 주민들을 체포, 푼빈 학교 운동장으로 끌고감. 약 10시경 주민들을 땅에 엎드리게 한 뒤 수류탄과 기관총을 쏘아 모두 68명의 양민을 학살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앙응아이성 문화통신부와 박물관 소장 자료 • '추적60분', '시사매거진 2580' 취재팀과 함께 생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위령비, 무덤 등 확인.
하파이 (Ha Tay) 양민학살	면하(Tinh Ha)사, 하파이읍	1966.11.26 오전	한국군들이 총을 쏘며 마을에 들어와 집집마다 불을 지르고, 마을에 있던 60세 이상 노인과 1, 2세 아기들까지 모두 20명의 주민들을 사당 정원에 잡아다가 고문을 한 뒤 총을 쏘고 칼로 찢러 죽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꾸앙응아이성 문화통신부와 박물관 소장 자료 • 필자가 현장을 직접 답사하여 이 마을의 유일한 생존자 쩌타파이(Tran Thi Tay)의 증언을 채록하고 위령비를 확인.

칸림 (Khanh Lam) 양민학살	띤티엔(Tinh Thien)사, 칸림촌	1966.8.14	새벽 무렵 한국군 1개 중대가 헬기를 타고와서 칸림촌 북쪽 험 산(Nui Ham)에 내림. 한국군들은 땅굴, 집, 골목, 정원 등에 몸을 숨기고 있던 노인, 여성, 어린아이들을 총으로 위협해 응웬붕(Nguyen Bung)씨의 논으로 집결시킴. 9시경 한국군들이 이 논에 모여있던 82명의 양민을 총을 쏘아 학살함.	꾸앙응아이성 문화통신부와 박물관 소장 자료
빈록 (Vinh Loc)	선쨌우(Son Chau)사, 빈록촌	1966.11.13	논에서 일하고 있던 40명의 주민들이 마을밖 5km까지 끌려가 총살당함.	미국 민간인 보고서 - 다 이엔 & 마이 클 존스의 '한 국군이라 불 린 동맹군'
선쨌우(Son Chau) & 쨌록(Son Loc)	선쨌우사와 선록사	1966.12.?	마을 주민 2백명이 폭빈(Phuoc Binh)촌 근처에 한 장소로 끌려가 총살당함.	
쿵록 (Khuong Loc)	쿵록촌	1966.9.30	40명의 주민이 폭탄구덩이로 끌려가 총살당함. 시신은 구덩이 속으로 던져짐.	
안띤(An Tinh) & 칸반 (Khanh Van)	선호아(Son Hoa)사, 안띤촌과 칸반촌	1967.8~9	포병이 일제 포격 후 벙커 안에 숨어 있던 30명의 사람들을 총을 쏘아 죽임.	
안빈(An Binh) & 동년 (Dong Nhon)	선동(Son Dong)사, 안빈촌과 동년촌	1966년 말	한국군들이 마을의 집들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까오다이(Cao Dai) 사원에 있던 사람들을 포함, 주민 46명이 학살당함.	
민쨌 (Minh Trung)	선남(Son Nam)사, 민쨌촌	1966년 말	30여 명의 주민들이 학살당함.	
빈박 (Binh Bac)	선짜(Son Tra)사, 빈박촌	1966.10월 ~11월	약 2~3백 명의 주민들이 자신의 집에서 학살당함.	
선킴 (Son Kim)	선킴사	?	약 1백 명의 주민들이 논으로 끌려가 총살 당함.	

* 꾸앙응아이성은 현재까지 모두 18건의 양민학살사건이 공식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700여 명의 양민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4. 꾸앙남(Quang Nam) 성

4-1. 디엔반(Dien Ban) 현

	장 소	기 간	내 용	출 처
투이보 (Thuy Bo) 양민학살	디엔티(Dien Tho)사, 투이보촌	1967.12.21 (음력)	오전 10시경 2대의 헬기가 투이보촌으로 들어서는 길목인 고소이 지역에 청룡부대 1개 소대를 내려 놓음. 한국군들은 마을로 밀고 들어오면서 닥치는 대로 총을 쏘아댔고, 주민들은 총알을 피할 수 있는 땅굴을 찾아 몸을 숨김. 한국군들은 마을 곳곳의 땅굴을 수색, 모두 땅굴 밖으로 나오라고 지시함. 그리고 땅굴밖으로 기어나오는 사람들을 차례대로 쏘. 이 과정에서 모두 145명의 양민들이 학살됨. 투이보촌으로 들어가는 들머리에 위령비가 서있음.	• 꾸앙남성 디엔반 박물관 소장 자료 - '디엔반현 양민학살 사건들', 디엔반현 전쟁 후과 조사반 • 필자가 현장답사를 통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채록하고, 위령비를 확인. • '나와 우리' 현장 답사.
하미 (Ha My) 양민학살	디엔중(Dien Duong)사, 하미촌	1968.2.25 (음력1.26)	새벽에 청룡여단 2개 중대가 각 군사기지에서 내려와 하미촌의 타이(Tay) 마을과 중(Trung) 마을을 포위, 아침 7시경 모두 3지점으로 모아 138명의 양민을 학살함.	• 꾸앙남성 디엔반 박물관 소장 자료 - '디엔반현 양민학살 사건들', 디엔반현 전쟁 후과 조사반 • '추적60분', '시사 매거진 2580' 취재 팀과 함께 현장을 방문, 생존자들의 증언 채록
디엔안 (Dien An) 양민학살	디엔안사, 퐁녃(Phong Nhat)촌과 퐁니(Phong Nhi)촌	1968.1.14 (음력)	호이안 주둔 청룡부대 소속 약 1개 중대 병력이 1번 국도의 지압바(Giap Ba) 다리 부근에서 퐁니촌 럽남(Lap Nam) 마을을 향해 소탕작전을 전개, 그 뒤 붓도랑을 건너 퐁녃 마을로 들어가 소탕작전을 수행. 이 과정에서 모듈 61명의 양민이 학살됨.	• 꾸앙남성 디엔반 박물관 소장 자료 - '디엔반현 양민학살 사건들', 디엔반현 전쟁 후과 조사반 • 필자가 현장답사를 통해 생존자들의 증언 채록.
디엔홍 (Dien Hong)	디엔홍사	1968.12월	4백명의 마을 주민 거의 모두가 학살됨.	미국 민간인 보고서 - 다이엔 & 마이클 존스의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탄퐁 (Thanh Phong)	탄퐁사	1968.2.12	한국군들이 도로 청소 작업 중 지뢰를 터트려 130명의 양민을 학살함. 희생자들 중엔 미군부대 소속 군인들의 가족도 포함되어 있음.	

4-2. 주이쑤옌(Duy Xuyen) 현

쑤옌따이 (Xuyen Tay) 양민 학살	쑤옌쨌우 (Xuyen Chau)사, 쑤옌따이촌	1968.2.29	포병의 지원사격이 끝난 후 병커에 숨어 있던 62명의 주민을 학살함. 마을은 한국의 관측소 인근에 있었고 '안전'등급을 받았음.	미국 민간인 보고서 - 다이앤 & 마이클 존스의 '한국군이라 불린 동맹군'
끼에우선 (Kieu Son) 양민 학살	쑤옌히엵 (Xuyen Hiep)사, 끼에우선촌	1968.10.20	베트콩의 한국 관측소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22명의 주민들을 각자의 집에서 학살함.	
동옌 (Dong Yen) & 찰선 (Chim Son)	쑤옌쑹(Xuyen Truong)사, 동옌촌과 찰선촌	1968.6.8	36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에서 학살됨. 2년에 걸쳐 이 지역에서 한국군인들에 의해 3백여 명 이상의 양민들이 학살됨.	
찌에우찌우 (Trieu Chau) 양민 학살	쑤옌타이 (Xuyen Thai)사, 찌에우찌우촌	1968.?.?	20여 명의 사람들이 공동묘지로 끌려가 학살됨.	
		1968.1.30	안전한 곳을 찾아 마을을 떠난 22명의 주민들이 길에서 학살됨.	
반꾸엇 (Van Quat) 양민 학살	쑤옌탄 (Xuyen Tan)사, 반꾸엇촌	1968.1.19	거의 대부분이 여자와 어린이들인 48명의 주민이 연못가에서 학살됨.	
쑤옌푼 (Xuyen Phuoc) 양민 학살	쑤옌푼사, 5촌	1968년 말	몇몇 임신부가 포함되어 있는 51명의 노약자들이 마을의 어느 한 집에 모여있다가 한국군에 의해 집단 학살됨. 나머지 주민들은 모두 달아남.	
		3월 22일 (연도 불확실, 아마도 1969년)	대부분이 여자, 어린이인 86명의 주민들이 병커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학살됨.	
		2월 8일 (연도 불확실, 아마도 1969년)	노인과 여자, 어린이를 포함한 86명의 주민이 학살됨.	
쑤옌터 (Xuyen Tho) 양민 학살	쑤옌터사, 레선(Le Son)촌과 선빈(Son Vien)촌	1969.2.21	한국군 때문에 마을에서 도망갔던 34명의 주민들이 설차해를 지내려 집에 돌아왔다가 학살당함.	
		쑤옌터사, 레선촌과 투언안(Thuan An)촌	1969.4.6	74명의 주민들이 모래둔덕으로 끌려가 총살당했고, 시체는 포탄구덩이에 던져짐.

4-3. 꾸에선(Que Son) 현

빈꾸앙 (Binh Quang)	빈꾸앙사	1969.11.11 ~12	134명의 양민을 학살.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 - '남부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죄악'
빈찌에우 (Binh Trieu)	빈찌에우사	1969.11.11 ~12	125명의 양민을 학살.	
빈호아 (Binh Hoa) 양민 학살	빈호아사	1969.11.11 ~12	86명의 양민을 학살. 한편 빈호아사의 푸호아(Phu Hoa)촌에서는 70세의 포(Pho) 노인을 잔인하게 고문한 뒤 목을 조르고 뒤로 꺾어 죽임. 푸선(Phu Son)촌에서는 스(Suu)씨의 14세 이하 아이 7명이 포함된 10명의 가족 전원이 학살됨. 히엔룽(Hien Luong)촌에서는 80세의 노인 또티찐(To Thi Chin)이 장갑차로 짓이겨져 죽음.	
빈다오 (Binh Dao)	빈다오사, 하빈(Ha Binh)촌	1969.11.11 ~12	바다에서 돌아오는 7명을 빈뎐(Binh Tinh)군대 초소로 잡아들여 일렬로 세워 모두 쏘아죽임.	
빈장 (Binh Giang) 양민 학살	빈장사, 빈뚜이(Binh Tuy)촌	1969.11.11 ~12	한국군들이 25세의 여성 호아(Hoa)를 때려서 숨지게 한 뒤, 총을 쏘아 시신을 산산조각냄. 또한 58세의 여성 도티민(Do Thi Minh)을 땅굴 입구에서 살해. 17세의 응웬딘림(Nguyen Dinh Lam)과 응웬뎐(Nguyen Tan)에게 야만적인 고문을 가한 후 각각 세 발의 자동연발소총을 쏘아 숨지게 함.	
* 비교 : 아직까지 불충분한 통계이지만 1969.11.11일과 12일 이틀동안 꾸에선현 빈중사, 빈장사, 빈찌에우사, 빈호아사, 빈다오사 등 5개 사에서 모두 7백 명 이상의 양민이 학살된 것으로 밝혀졌다.				

4-4. 탕빈(Thang Binh) 현

탕빈 & 탐끼(Tam Ky) & 꾸에선	탕빈현, 탐끼현, 꾸에선현	1968.11.7 ~11.17	탕빈현, 탐끼현, 꾸에선현에 속하는 몇 개 사에서 476명의 양민이 포격으로 사망.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 - '남부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죄악'
탕빈 양민 학살	탕빈현	1969.3.11 ~4월	111명의 양민이 학살됨.	
		1969.4.24 ~5.23	탕빈현 동부지역에서 모두 300명의 양민이 학살됨.	
빈푸 (Binh Phu) & 빈중 (Binh Duong)	탕빈현, 빈푸사와 빈중사	1969.4.25 ~5.13	빈푸사와 빈중사 2개 사에서 모두 145명의 양민이 학살됨.	
빈중 (Binh Duong) 양민 학살	빈중사, 찰록컨(Cho Loc Can)촌, 버우빈퐁(Bau Binh Thuong)촌, 버우빈하(Bau Binh Ha)촌, 주이안(Duy An)촌, 하따이(Ha Tay)촌	1969.11.11	하루 동안 찰록컨촌에서 75명의 양민을 다이너마이트와 크레모아를 사용하여 학살하였고, 버우빈퐁촌과 버우빈하촌에서는 터(Tho)씨의 땅굴에서 39명, 풍(Phung)씨의 땅굴에서 15명을 학살하는 등 빈중사 5개 촌에서 모두 349명을 학살.	

4-5. 호아방(Hoa Vang) 현

호아방 양민학살	호아방현, 찌우선(Chau Son)촌과 껀레(Cam Le)촌	1965.6월	찌우선과 껀레 2개 촌에서 모두 130명의 양민이 학살됨.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 - '남부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죄악'
----------	-----------------------------------	---------	----------------------------------	--------------------------------------

4-6. 다이록(Dai Loc) 현

다이록 양민학살	다이록현, 록푹(Loc Phuoc)촌과 록호아(Loc Hoa)촌	1969.5.9 ~5.12	록푹과 록호아 2개 사에서 모두 3백 명의 양민이 학살됨.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 - '남부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죄악'
----------	-------------------------------------	----------------	----------------------------------	--------------------------------------

4-7. 푸선(Phuoc Son) 군

푸선 양민학살	푸선군, 띠세(Ty Se) 지역	1969.1.15 ~1.27	띠세 지역에서 200명의 양민이 학살됨.	베트남 문화통신부 자료 - '남부베트남에서의 남조선 군대의 죄악'
---------	-------------------	-----------------	------------------------	--------------------------------------

* 꾸앙남성에서는 현재까지 약 30건에 달하는 양민학살 사건이 공식확인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모두 4천여 명의 양민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5. 칸호아(Khanh Hoa) 성

	장 소	기 간	내 용	출 처
판랑 양민학살 (Phan Rang)	판랑지역, 린선(Linh Son) 사(寺)	1969.11.14	한국군 병사 1명이 린선사에서 베트남 여성을 희롱하다 주지승에게 쫓겨난 후, 이에 격분하여 여러 동료들과 함께 무기를 가지고 몰려와 71세, 69세의 노승, 41세의 여승, 15세의 행자승 등 린선사 스님 4명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움.	<AFP통신> 1969.11월. '나와 우리' 현장답사를 통해 생존자 증언 채록.
닌터 (Ninh Tho)	닌호아(Ninh Hoa)현, 닌터사	1965년	17명의 양민이 학살당함.	닌호아현 역사 당보(필자가 현장답사를 통해 생존자들의 증언을 직접 채록)
쩍레 (Chap Le)	닌호아현, 닌턴(Ninh Thon)사	1967년	24명의 양민이 학살당함.	

* 칸호아성에서는 현재까지 모두 3건의 양민학살이 공식확인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46명의 양민이 희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 총 결 >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이 주둔했던 남부 베트남 5개 성에서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한국군 양민학살 사건은 약 80여 건에 달하며, 이 과정에서 총 9천여 명 이상의 양민이 희생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집계는 아직까지 불충분한 통계를 가지고 정산한 것이다.